

2009년 추석아침 가정예배문

“산소호흡기를 달지 않고도 숨을 쉬고 살아 있음에 감사합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의 고백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로 뇌를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일곱 살 때까지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고, 열살이 되어서야 손가락을 겨우 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밥을 제대로 떠먹지 못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은 어두운 지하 단칸 방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로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인 송명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골이 이렇게 참혹하고, 내 처지가 처절하다고 당신들이 나를 동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이 갖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녀는 자신이 지은 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은 시집만도 벌써 10여 권이 넘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감사 고백입니다.

“전에 나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감사를 하게 되었다. 인생이 얼마나 장수하는가,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가에 참된 가치가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이상 나의 장애가 결코 감사 못한 선물이 아님을 알았다.”

- “작은 감사 큰 행복” 중에서 -

2009년 추석아침 가정예배문

명절날 아침에 드리는 예배는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억할 뿐 아니라, 조상들을 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장자나 신앙의 세대주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 조용한 기도 / 인도자

(※ 묵상하는 동안 인도자가 시편 23편을 천천히 낭독해도 좋다.)

■ 사도신경 / 다함께

■ 찬 송 / 새28장 (통28장) / 다함께

■ 기 도 / 말은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선조들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저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삶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그 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보다 나은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 저희 가족들 간에 사랑과 우애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성경봉독 / 신명기 8:7~18, 누가복음 17:11~19 / 말 은 이

■ 설 교 / 진정한 감사를 드리라 / 인 도 자

(※ 다음 면의 '설교문' 을 읽거나,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교한다.)

■ 찬 송 / 새220장 (통278장) / 다 함 께

(※ 가족들이나 돌아가신 어른들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을 불러도 좋다.)

■ 마침기도 / 주기도문 / 다 함 께

(※ 주기도문을 대신해서 아론의 축복기도를 함께 읽어도 좋다.)

“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24~26) ” 아 멘

진정한 감사를 드리라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 11월 셋째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왔지만, 요즘은 우리나라 전래의 추석에 맞춰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교회도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은 들판에 오곡백과가 아름답게 열매맺은 것을 바라보며 햇곡식의 첫 수확을 조상님들께 드리며 감사한 반면, 기독교 전래의 추수감사절은 논밭의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수확한 후에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앞의 7장에서 약속의 땅에서 겪게 될 낯선 위협에 대해 말하고, 본문 8장에서는 정착할 땅에서 얻게 될 축복에 들어있는 교만과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결론적으로 만일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게 되어 결국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 고침 받은 열 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사람 뿐 이었다고 증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는 모두 열 명이었으나 이방인 한 명을 제외한 아홉 명은 하나님께 나아와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바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참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 103:2)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침 받은 열 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둥병이 나았음을 확인하자마자 주님께 나아가 큰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사례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랑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송케 하려는 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셋째,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주님께서서는 홀로 돌아와 사례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이 단순히 육체만 문둥병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영혼도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열 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나 나음을 얻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리석은 아홉 명처럼 받은바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은 채, 그저 일시적인 구원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고, 받은바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감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 설교 후에는 인도자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기도한다.>

2009년 추석 성묘예배문

“묘소에 도착하면 먼저 조용히 기도하고 모두 도착하는 대로 묘소를 향하여 서거나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되 음식은 차리지 않는다.
여러 묘소를 차례로 성묘하는 가족들은 예시된 찬송과 성경 중에 하나씩을 택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 목 도

“다같이 마음을 정리하고 조용히 묵상하며 추석 성묘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찬 송 < 새587장, 588장, 589장, 590장, 427장, 428장, 429장 >
(통307장, 309장, 310장, 453장, 459장, 460장, 543장)

▣ 기 도 (※ 여러 묘소를 차례로 성묘하는 경우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한다.)

▣ 성경봉독 구약 - 출애굽기 20:12, 레위기 23:39~44,
신명기 8:6~17, 이사야 61:10~11
신약 - 누가복음 12:22~31, 고린도후서 9:6~15,
갈라디아서 6:6~10, 히브리서 11:1~6

▣ 덕 담 (※ 설교를 대신하여 참석자 중 어른이 가문과 조상들에 대해서, 또는 돌아가신 분들의 생전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덕담을 나눈다.)

▣ 기 도 (※ 여러 묘소를 성묘하는 경우 각 묘소마다 가족 중 한사람씩을 정해서 전 가족이 둘러앉아 기도해주는 것도 좋겠다.)

▣ 찬 송 < 새591장, 592장, 593장, 430장, 431장, 435장 >
(통260장, 263장, 271장, 371장, 442장, 539장)

▣ 주 기도 (※ 인도자가 주기도문을 드린 후 예배가 마친 것을 선언한다.)

“성묘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항상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 예배 후에는 묘소 주위를 돌아보며 정리하고 가족 간에 사랑을 나눈다.>